임실 군법당 장병불심에 관심 집중

임실 6탄약창 호국 장영사, 나란다 축제에서 대상 등 42명 입상

최우수상 2명 등 높은 성적
자체 골든벨 등 장병 참여 독려
장병포교에 지역불심 하나로

군부대의 종교행사 중 교회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동참하는 법당으로 유명한 전북 임실의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가 제5회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불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국 장영사는 지난 9월 7일 개최된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에 74명의 장병들이 참여해 고준태일병이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입상 35명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향토사단인 35사단도 단 한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다.

대상을 차지한 고준태 일병은 "입대 전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절을 찾았던 것이 부끄럽다"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제대 후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절을 참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 장영사가 군부대 불심을 주도하는 데는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이성강 포교사의 역할이 컸다. 이 포교사는 매주 법회 때마다 간단한 교리 퀴즈문제를 내고 정답을 말한 병사에게는 간식과 선물을 주면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1년에 초파일과 가을에 2회 도전 골든벨 형식의 교리 퀴즈대회를 열어 병사들의 교리실력을 점검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와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상품으로 걸어 병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 서유원 금강회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위봉사 관음회 불자들이 '편안한 법당, 쉼터같은 법당'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하고 있다. 법회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가족같은 법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호응은 높다. 이런 노력으로 100여 명의 병사들이 참여하는 일요법회는 인원의 변동없이 꾸준한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 초파일에는 모든 장교 사병들이 단결해서 부대 전역에 연등으로 장엄하고 부대장까지 참여하는 자체 연등제도 봉행하고 있다.

지역 스님들도 이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는 매년 이들을 금산사로 초청해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남고사 원혜 스님(금산사 총무국장)은 부대 유격훈련마다 전 부대 장병들에게 빵과 우유 각 1000개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도 호국 장영사 장병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유원 금강회장은 "불자 장병들 상호간 항상 믿고 따르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은 "군 법사가 상주하고 많은 병력이 있는 상급부대에서도 해내지 못한 일은 작은 부대의 일반 포교사들이 해냈다"며 "좀더 재미있고 알찬 법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군법사들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성강 법사가 호국 장영사 장병들에게 수계하고 있다.

호남 불교합창단, 한마음으로 범능 스님 추모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졌던 범능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불교합창단들의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광주지역 불교계 합창단 연합은 10월 16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에서 '불음당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나 없어라'를 봉행했다. 이날 음악회는 범능 스님과 교류활동을 펼쳤던 부루나합창단, 카일라스합창단, 증심사합창단, 원각사합창단, 길상사합창단이 연합하여, 범능 스님이 작곡하고 노래한 10곡을 선보였다.

故범능 스님은 '오월의 꽃'에서부터 '무소의 뿔처럼'까지 네 장의 노래음반과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일곱 장의 명상음반을 발표했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 쉼터 마련, 소아암 환자 돕기 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광주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분주히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후, 6월 13일 입적했다. 6월 10일 발매한 '나 없어라'는 스님의 마지막 유작 앨범이 됐다. 이날 음악회는 범능 스님이 직접 창립한 부루나합창단을 비롯해 평소 스님과 음악적 교류활동을 펼친 광주지역 합창단이 스님의 노래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개최한 추모음악회다. 범능스님의 생전 영상을 시작된 음악회는 카일라스 합창단이 범능 스님의 노래 중 '큰 수레를 함께 타고', '푸른 학으로'를 불러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증심사 합창단의 '석가모니불', '흔들리며 피는 꽃'과 원각사 · 길상사 합창단, 부루나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수 이동원과 김선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수석)의 해금 연주는 범능 스님의 추모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려사찰 추정, 군산 취성산 용천사지 확인

군산 취성산에서 고려시대 사찰인 용천사지가 발견됐다. 군산의 불교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은 고지도상에 나타난 용천사지로 추정되는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23번지 일대에서 조선시대 기와편에 양각된 용천사 명문을 발견했다.

기와 명문은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써 〈ㅁ泉寺〉가 세로로 두 줄 양각되어 있다. 왼편 세로글씨는 선명하지만, 오른편 세로글씨는 자세히 보아야 〈ㅁ泉寺〉 명문 판독이 가능하다.

2010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사지총람〉 下권에는 축산리 예산석조여래입상(芮山石造如來立像)조에서 '이 불상은 축산리 교동 마을에 있다. 불상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위치는 원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머리와 다리 부분은 결실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만 서술하고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682년(숙종8년)에 발행된 〈동여비고〉에는 '용천사가 취성산에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문화상품 일반에 첫선, 열띤 호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13일 광주서 '불교와 디자인' 선 보여


홍보관을 방문한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서 두번째〉이 USB 합장주를 차보고 있다.

한국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현대적 불교 문화상품이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10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디자인 코리아 2013'에서 '불교와 디자인이 만나다'는 주제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불교문화상품 등을 선보여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시회는 불교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 자리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인 도자기, USB합장주, 템플스테이 엽서, 문구류, 불교용품 등 아이디어 상품과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기념품 40여 종, 그리고 사업단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까지 총 100여 점이 전시되었다. 또 손수건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도 같이 진행됐다.

오후 4시에 개막된 행사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해 디자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사후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강운태 시장은 불교문화상품 등을 둘러보고 "아름다움과 전통이 살아있는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업단은 USB가 장착된 합장주를 선물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8년부터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합니다"

선각종 옴천사, 10월 13일 강진 풍어제 개최


10월 13일 마량항에는 1000여 어민이 참여해 적조 등으로 해를 입은 어족자원 회복을 발원했다.

강진지역 어민들의 풍년기원에 불자들이 나섰다. 선각종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13일 강진 마량항 중방파제에서 선각종 스님들과 황주홍 국회의원, 윤재공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불자와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어제 및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풍어제는 강진만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남해안의 미항중 하나인 강진 마량에서 군민과 불자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남다른 의미를 주었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서울 봉원사 일운 스님의 시연으로 장엄하게 봉행됐다.

이날 풍어제에서 정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다. 이번 풍어제와 수륙대재는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 축하공연(트로트신동 장송호, 국악신동 심지훈 등)을 시작으로 10시 30분 풍어제 및 방생, 11시 수륙영산재 시연이 봉행됐다.

특히 수륙재에는 선각종 광주전남종무원 주최로 바다 물고기 방생과 바다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천도의식도 같이 봉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동성 스님의 회심곡 시연이 특별 초청되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에 미얀마 법당 첫 개원

광주지역 미얀마 불자들의 신행공간이 생겼다. 10월 13일 광주 대표적 공단지역인 하남산업단지 3번 도로에서는 미얀마 불자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최초의 미얀마 법당인 '담마야나 선원' 개원식이 봉행됐다. 이날 개원한 담마야나 선원은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중 최초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법당으로 지하 1층에 55평 규모로 법당과 스님방, 근로자 쉼터로 구성되었다. 특히 선암사 강주 목우스님은 법당의 리모델링까지 도맡아 미얀마 불자들을 후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대산 천년 옛길인 '선재길' 개통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10월 17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대산의 천년 옛길인 '선재길'을 새로 정비해 개통했다.

선재길은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간 9km 구간을 잇는 옛 숲길로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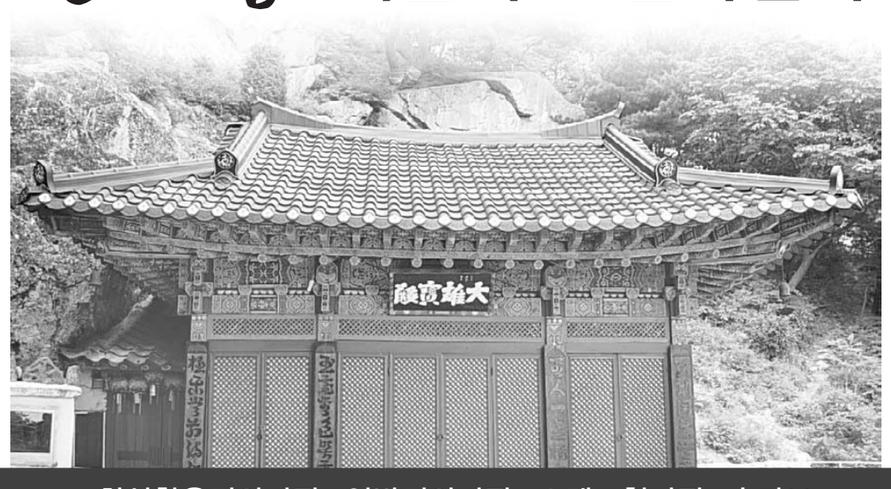
선재길 탐방로는 계곡을 건너는 곳곳에 징검다리와 섶다리, 출렁다리가 설치돼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

'깨달음과 명상'을 주제로 조성한 선재길 탐방코스는 제10회 오대산 문화축전과 연계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이용민 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국내외 많은 탐방객이 오대산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본다. 선재길 탐방로를 불교성지인 오대산의 특성을 살려 순례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월정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